코로나 완화에 ‘밖으로’… 골프장·리조트는 ‘부킹 전쟁’

해외 골프여행 막히며 광주·전남 골프장 특수

함평엘리체·무등산·무안CC 등 4주후까지 예약 마감

전남 리조트·관광지도 북적… 쏠비치·디오션 ‘토요일 만실’

쏠비치 10월 이용률 81%…지난해 오픈 특수보다 몰려

방역 당국은 긴장…개인 위생 등 규칙 준수 철저 당부

“골프장 부킹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네요. 인터넷 예약도 눈 깜짝할 새 마감돼 버린다니까요.”

직장인 박정훈(46·광주시 서구)씨는 오는 11월 고교 동창 모임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박씨는 평소 한해에 한번 꼴로 고교동창들과 동남아 해외 골프 여행을 즐겼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 국내로 눈을 돌렸지만 그마저 예약이 쉽지 않았다.

박씨는 “우선 숙소는 예약을 했지만,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 모임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해외 출국이 막혀 국내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쏠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광주·전남 골프장과 리조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외 출국길이 막히면서 해외 골프여행을 할 수 없는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골프장 부킹(booking)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고, 전남지역 리조트는 휴가철이 아님에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골프는 답답한 상황에서의 야외 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특수를 맞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나 휴양지 이용이 폭증하면서 반대로 방역 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차원의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골프업계에 따르면 지역 골프장 대부분은 주중·말을 가리지 않고 오는 11월 셋째 주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됐다.

함평엘리체CC의 경우 오는 11월 22일까지 예약이 가득찬 상황으로, 혹시나 예약 취소가 된 시간대가 있는 지를 묻는 문의전화만 하루 평균 수십 통에 달한다. 이 골프장은 매일 자정께 온라인으로 4주 후의 라운딩 예약이 가능한데, 5분이면 마감된다는 게 골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안CC·무등산CC도 비슷한 상황이며, 올 가을 골프장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70~75팀의 예약이 가득차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지자, 예약 취소자 등이 발생해 예약자 중간에 들어가는 일명 ‘끼워넣기’도 불가능해졌다.

여수 디오션 CC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골프장 이용객이 10~20% 가까이 증가했다”며 “코로나로 해외 골프 여행이 막힌 게 큰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말했다.

휴가철이 지났지만 지역 관광명소를 찾거나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리조트에 묵는 지역민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진도 대명리조트 쏠비치의 경우 지난 토요일 객실 562개 가운데 546개가 차면서 이용률이 97.1%에 달했고, 일요일은 9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쏠비치의 올 10월 평균 이용률은 81%로 문을 연 첫 해인 지난해 10월의 전체 객실 이용률인 80.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하면서 이용객은 더 늘고있는 추세다.

여수 디오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금요일 객실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토요일은 100%에 달한다. 디오션 객실 이용객 가운데 골프장인 디오션CC 이용객이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골프장과 리조트, 유명 관광지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구 치평동 “우리 마을 역사 알아보자” 지난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장수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치평마을프로젝트 ‘비바(Viva)치평’ 행사에서 주민 40여 명이 ‘가족숲크닉’을 즐기고 있다. 〈독자 제공〉

‘7년째 동결’ 전남대 법전원 등록금 여전히 많다

한 해 1037만원…고려대 1950만원 ‘최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4년째 동결 상태이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950만원이다. 전남대 법전원은 2014년부터 7년째 동결로 10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고려대 법전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자는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1년의 임금 중 절반을 등록금으로 써야 하는 꼴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교육부의 동결 및 인하조치에 따른 국립대 동결이 2020년이 까지라는 점에서 조치가 끝나면 인상도 예상된다는 게 이의원측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 주요 법전원 2020년 등록금

고 려 대	1950만원
연 세 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 양 대	1711만4000원
제 주 대	1044만원
전 남 대	1037만원
경 북 대	1034만4000원
강 원 대	1005만원
부 산 대	990만8000원
충 북 대	982만4000원
충 남 대	964만8000원

〈이은주 의원실 제공〉

난방용품 화재 주의하세요

전남 5년간 205건 발생…인명피해 16명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11월~2월) 화재 중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205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6명(사망 2명, 부상 14명), 피해액은 16억 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만 총 33건으로 화목보일러 20건, 전기장판 1건, 전기히터 9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열풍기 3건 등이 발생했다.

난방기기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무 등 땔감을 원료로 한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에 주의해야 하고, 연통이 과열되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어 보일러 가동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불, 베개 등) 등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장시간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

20대 고민 ‘탈모’

5년간 21만6220명 진료

5년만에 16% 늘어나

탈모가 청년들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성 탈모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환자 비율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20대가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의원이 25일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의 탈모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9만 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20만 8601명이던 탈모환자는 2019년 23만 2167명으로 5년간 11.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2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20대 탈모환자는 지난 5년간 21만 62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4만 321명에서 2019년 4만 6862명으로 16% 늘어나 평균 증가율 11.3%를 크게 웃돈다.

최근 5년간 탈모치료를 받은 환자 109만 1869명 중 남성은 55.8%, 여성은 44.2%으로 남성 탈모 비율이 높았다. 다만 2015년 9만 4000명 수준이었던 여성 탈모 환자 수가 지난해인 2019년 10만명을 넘어서 여성 역시 탈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평가’ 최우수상

광주시 서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광주서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추진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 결과로 서구시니어클럽은 환경정비사업, 학교앞 교통안전활동과 같은 공익활동과 수익창출형사업인 시장형사업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시장형 사업 중 ‘손수레금수레’ 사업단은 기존 폐지수거에 아이디어를 더한 폐지수거 리어카 광고 사업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및 서구청 등과 ‘끌림 손수레 광고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서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서구에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급상자, 마스크 등을 비치한 ‘어르신 반창고의 집’ 운영, 안전방지턱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 ‘우리동네 보안관’ 사업을 통한 보안활동으로 지역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호남대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선정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호남대학교 취·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활동 위축과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개방형 화상 회의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구체적으로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 ▲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별 협·단체 등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의 기업지원 기관에 올 연말까지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 대학은 각각 1200만 원을 지원받아 화상 회의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상 회의실은 지역 중소벤처 기업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방 및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해 이용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